

朝鮮刊本 『劉向新序』의 서지·문헌 연구*

劉承炫**
(경희대학교)

閔寬東***
(경희대학교)

◆ 국문초록

朝鮮刊本 『劉向新序』는李克墩이 1492년경 출간하도록 한 판본이다. 현존하는 朝鮮刊本 『劉向新序』는 민관동에 의해 계명대학교 소장본 2종(上冊)과 金俊植 집안(이하에서는 '後彫堂'으로 약칭)의 소장본(下冊) 그리고 분실된 崔在石 소장본과 金用基 소장본이 발굴되었다. 필자는 이외에 한국학중앙연구원(下冊)·경기대학교(下冊)·일본국회도서관(완질)·아단문고(上冊)·성암고서박물관(下冊) 소장본의 존재를 확인하였다. 본 논문은 위의 판본들 중 원문을 확인할 수 있는 판본인 계명대·한국학중앙연구원·경기대·後彫堂·일본국회도서관 소장본을 대상으로 朝鮮刊本의 특징들을 연구하였다.

上冊의 경우, 계명대 귀증본은 '初刻本'이고 고본은 '初刻本'의 제69~70면과 제71~72면을 補刻한 '補刻本'이다. 또한 일본국회도서관 소장본도 고본과 동일한 면이 補刻된 '補刻本'이다. 下冊의 경우, 한국학중앙연구원과 경기대 소장본은 '初刻本'이고, 後彫堂과 일본국회도서관 소장본은 제9~10면·제63~64면·제87~88·제107~108면을 上冊과 마찬가지로 해당 면을 補刻한 '補刻本'이다. 현존 판본들을 비교해보면, 上冊의 경우 현존하는 판본으로는 2회에 걸쳐 인쇄되었음만 단정할 수 있고, 下冊의 경우에는 현존하는 4종의 판본들은 3회에 걸쳐 인쇄가 이루어졌음을 확정할 수 있다.

필자는 이어서 현존 판본들을 바탕으로 실제 문헌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朝

* 본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 결과임(NRF-2016S1A5A2A03925653).

** 제 1저자 :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연구원.

*** 교신저자 : 경희대학교 중국어과 교수.

鮮刊本の 특징을 도출하였다. 먼저 卷首題·卷尾題와 문단의 형식을 논술하였고, 그리고 본문은 원칙적으로 字數가 '11行18字'로 되어있으나, 실제 판본 상에는 '18字'가 아닌 경우들을 찾아내 해당 面과 行의 字數를 표로 제시하였으며, 또한 小字註가 雙行으로 된 경우를 고찰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朝鮮刊本에는 원문에 빈칸이 나타나는데 해당부분과 해당 글자를 모두 밝혔으며, 마지막으로 朝鮮刊本の '誤脫字'를 찾아내어 해당부분을 명기하고 오류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주제어 : 朝鮮刊本, 『劉向新序』, 계명대 소장본,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본, 四部叢刊本

1. 들어가며

劉向(BC 77(?)~BC 6)은 漢代의 경학가로 先秦의 고적들을 수집하고 직접 校勘하여 『列女傳』·『列仙傳』·『洪範五行傳論』·『說苑』·『新序』·『戰國策』 등을 편찬하였다. 『新序』는 上古시대부터 漢代에 이르기까지 역사적 인물인 舜·桀·紂·楚 莊王·齊 桓公과 管仲·扁鵲·孟嘗君·梁 宋就·齊 景公과 晏子 등의 다양한 일화와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다. 漢代 30권이던 『新序』는 宋代에 이르러 많은 부분이 일실되었는데, 曾鞏(1019~1083)은 잔존하는 내용을 수집하여 총 10卷으로 구성된 판본을 편찬하였다.¹⁾ 현재 통용되는 판본이 바로 曾鞏이 편찬한 10권 본인데, 이 판본은 보통 10권 2책으로 되어있다. 上冊은 「雜事一」·「雜事二」·「雜事三」·「雜事四」·「雜事五」 총 5篇으로, 下冊은 「刺奢」·「節士」·「義勇」·「善謀上」·「善謀下」로 총 5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 사람이 漢代 편찬된 『新序』를 열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최초의 기록은 崔致遠(857~?)에게서 찾을 수 있다. 崔致遠은 『新序』를 직접 인용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글에서 관련내용을 4차례나 사용하였다.²⁾ 이

1) 姚娟, 「『新序』·『說苑』文獻研究」, 華中師範大學 博士學位論文, 2009. 27쪽 참조.

2) 崔致遠, 『桂苑筆耕集』 제15권, 「黃錄齋詞」·『桂苑筆耕集』 제17권, 「謝職狀」·『孤雲集』 제1권, 「善女住院壁記」·『孤雲集』 제2권, 「無染和尚碑銘 竝序 奉教撰 下同」.

를 통해 崔致遠이 『新序』를 열람하였음을 확정할 수 있지만, 『新序』가 국내에 유입되었는지는 확정할 수 없다. 崔致遠은 12세 때 唐으로 유학을 떠나 18세에 장원급제하고 그 후 10여 년간 唐 정부의 관료로 활동하였기 때문에 중국에서 직접 『新序』를 열람할 수는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唐代에는 간행본이 존재하지 않았고 필사본만 존재하였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崔致遠이 귀국할 때 필사본 『新序』를 국내로 가져왔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新序』가 국내에 유입되었음을 확정할 수 있는 최초의 기록은 『高麗史』에 등장한다. 그것은 『高麗史』 宣祖8年(1091)의 기록이다. ‘丙午 宋에서 李資義 등이 돌아와 아뢰어 말하기를, “황제께서 우리나라에 善本인 책이 많다는 말을 듣고는, 館伴에게 명하여 구하고자 하는 책의 목록을 써 주었습니다. 그것을 주며 말씀하시기를, ‘드디어 비록 卷第가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역시 마땅히 傳寫하여 더해서 오라.’라고 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³⁾ 이 인용문 이하에 나오는 목록에 『新序』라는 서명이 보인다. 『高麗史』의 기록에 근거하면 『新序』가 고려 초기인 1091년경에는 이미 국내에 유입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⁴⁾ 이후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新序』에 관한 많은 기록들이 남아 있다.

曾子固(曾鞏의 字)는 劉向의 『新序』에 대한 序에서, 도덕이 일치되게 하고 풍속을 동일하게 하는 것이 王者의 최고 공적이라 推論하였는데, 그 논리가 대체로 훌륭하다.⁵⁾

『新序』에 대한 黃玹(1855~1910)의 이 평가는 조선 지식인의 생각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조선의 지식인들은 『新序』를 帝王學의 교재로서 군주뿐만 아니라 정치가들이 나아갈 바를 제시한 책으로 받아들였다. 正祖(1752~1800, 재위 1777~1800)는 신하들과 『詩經』에 대해 문답하면서 『新

한국고전종합DB(<http://db.itkc.or.kr/>) 참조.

3) 『高麗史』 「世家」 卷10, 宣宗8年(未辛年)6月條.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에서 인용.

4) 민관동, 「조선 출판본 『新序』와 『說苑』 연구」, 『中國語文論譯叢刊』 제29집, 2011. 참조.

5) 黃玹, 『梅泉集』 제6권, 「東溪草堂記」. 한국고전종합DB(<http://db.itkc.or.kr/>)에서 인용.

序』를 2차례 직접 인용하였다.⁶⁾ 또한 李瀾(1681~1763)도 여러 차례 『新序』를 직접 인용하기도 하였는데,⁷⁾ 이는 그가 『新序』를 소장하고 탐독하였던 것을 의미한다. 조선의 군주와 지식인들이 『新序』를 직접 인용한 것을 제외하고도 조선시대 문인들의 글에는 『新序』에 나온 이야기를 언급한 경우가 다수 등장한다.⁸⁾ 이를 보면 『新序』에 대한 조선 지식인들의 독서수요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인지 당시 정부의 고위관료였던 李克墩(1435~1503)이 1492년경에 『新序』를 간행하도록 하였다.

조선시대 간행된 『劉向新序』의 실물은 민관동이 최초로 발굴하여 학계에 보고하였으며, 출판의 목적과 의의를 제시하였다.⁹⁾ 이후 필자는 다른 판본들을 더 찾아내어 현존하는 朝鮮刊本 『劉向新序』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러면서 원본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朝鮮刊本の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목판본 『劉向新序』는 初刊 이후에도 여러 차례 간행되었는데, 후대에는 ‘初刻’한 목판의 훼손된 면들을 ‘補

- 6) ‘黍離篇』에 대해, 『毛傳』에서는 大夫가 宗周(鎬京) 지역을 지나다가 민망히 여겨 지은 시라고 하였는데, 주자는 이 설을 따랐다. 그러나 『新序』에서는 “衛伋이 해를 당하자 아우인 衛壽가 민망히 여겨 黍離의 시를 지어 형을 찾은 것이다.” 하였고……’(『弘齋全書』 제84권, 『經史講義』 21 「詩」) ‘二子乘舟篇』은 두 사람이 하수를 건너다가 죽은 것 같다. …… 오직 劉向의 『新序』에서만 말하기를, …… 이 글을 근거로 해서 보면 실로 두 사람이 배를 탄 일이 있는데, 『左傳』과 『史記』에는 없다. 그렇다면 劉向은 어느 것을 근거로 해서 이와 같이 설명한 것인가?’(『弘齋全書』 제88권, 『經史講義』 25 「詩」). 한국고전종합DB(<http://db.itkc.or.kr/>)에서 인용.
- 7) ‘劉向의 『新序』에……’(『星湖僊說』 제3권, 「天地門」 「撫箕星」), ‘이 뜻은 내가 『新序』에서 얻었다’(『星湖僊說』 제10권, 「人事門」 「乘馬耕牛」), ‘劉向의 『新序』를 살펴보면……’(『星湖僊說』 제18권, 「經史門」 「牛後」), ‘劉向의 『新序』에도 그런 말이 실려 있다’(『星湖僊說』 제19권, 「經史門」 「卞莊子」), ‘우연히 劉向의 『新序』를 읽다가……’(『星湖全集』 제24권, 「答安百順 甲戌」). 또한 劉向이 『說苑』과 『新序』를 편찬한 것을 평가한 글도 있다. ‘劉向에게는 경전·제자·시부를 맡겨 교정하도록 하고, 任宏에게는 兵書를, 尹咸에게는 術數를, 李柱國에게는 方技를 각각 맡겨 교정하게 하였다. 한 서적이 끝날 때마다 劉向은 그 篇目を 구분하고 旨意를 간추려서 나라에 주달하게 되었다. 지금 『說苑』·『新序』라는 것이 바로 그가 듣고 본 것을 여러 가지로 적은 것인데, 당초에는 어려운 일이 아니었던 것이다.’ 한국고전종합DB(<http://db.itkc.or.kr/>)에서 인용.
- 8) 한국고전종합DB를 검색하면 『新序』와 관련한 글들이 100여개 정도 나온다. 물론 동일 인물들의 글이 중복되어있기도 하지만, 『新序』의 독서층이 상당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 9) 민관동, 『조선 출판본 『新序』와 『說苑』 연구』, 『中國語文論譯叢刊』 제29집, 2011.

刻'하여 간행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모든 목록의 판식사항에는 '11行18字'로 되어있는데, 字數가 '18字'가 아닌 부분도 있다. 또한 작은 글자의 주석이 등장하는 부분과 誤字나 脫字 등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런 내용은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밝힐 것이다.

『新序』의 중국 판본은 北宋刊本(11行20字)이 있고, 元刊本(11行18字)이 있다.¹⁰⁾ 또한 明代에는 『新序』와 『說苑』의 合刊本이 등장하는데, 洪武年間刊本(10行19字)·嘉靖26年(1547) 何良俊의 간본(10行20字)·嘉靖38年(1559) 楊美益의 『劉氏二書』本(11행18자)·萬曆20年(1592) 程榮의 『漢魏叢書』本(9행20자) 등이 있다. 清代에는 四部叢刊本·四庫全書本·宋本을 교정하여 편찬한 鐵華館本 등이 있는데, 이 중 鐵華館本은 지금까지 善本으로 공인받고 있다.¹¹⁾

위에 소개한 중국판본 중 明代 宋刊本을 覆刻한 四部叢刊本¹²⁾은 朝鮮刊本의 판식과 모든 면의 내용이 일치할 뿐만 아니라 字數가 '18字'가 아닌 부분과 小字註가 등장하는 부분까지 완전히 일치한다. 두 판본은 전체적으로 동일한 판본처럼 보이지만, 세밀하게 비교하면 글자가 다른 부분들이 등장한다. 두 판본 모두 오류인 경우도 있고, 한 판본은 정확한데 다른 한 판본이 오류인 경우도 있다. 이런 내용 중 朝鮮刊本의 오류에 대해서는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밝힐 것이다.

10) 필자가 참고한 姚娟, 「『新序』·『說苑』文獻研究」와는 다르게 이것이 元代 판본이 아니라는 견해도 있다. ‘按《增訂四庫簡明目錄標注》謂元刻本十一行十八字，目錄置於序前。此本與之相符，雖趙體字頗為秀美，而實非元刻。’《柏克萊加州大學東亞圖書館中國古籍善本書志》(上海古籍出版社，2005，134쪽). 이것은 논문심사자가 제기한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11) 姚娟, 「『新序』·『說苑』文獻研究」, 華中師範大學 博士學位論文, 2009. 28~30쪽 참조.

12) 필자가 참고한 『四部叢刊初編』은 ‘景江南圖書館藏明覆宋刊本’으로 ‘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https://ctext.org/zh>)’이란 사이트에서 원문의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다.

II. 朝鮮刊本 『劉向新序』의 현존 판본

필자는 앞에서 이극돈이 『新序』를 간행하게 하였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출판 기록은 『成宗實錄』의 成宗24年(1493年)12月29日條에 나온다.

이조판서 이극돈이 와서 아뢰기를, “『太平通載』·『補閑集』 등의 책은 전에 監司로 있을 때 이미 印刊하였고, 유항의 『說苑』·『新序』는 文藝에 관계되는 바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帝王의 治道에도 관계되며, 『酉陽雜俎』가 비록 不經한 말이 섞여 있다 하나 또한 널리 보는 사람들이 마땅히 涉獵하는 바이므로, 신이 刊行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前日에도 諸道에 새로 간행한 書冊을 進上하라는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進封하였을 뿐입니다.¹³⁾

‘이극돈이 地方監司(慶尙道觀察使)로 재직할 때 이미 『太平通載』와 『補閑集』 등의 책을 印刊하였다고 하였고 『說苑』과 『新序』 및 『酉陽雜俎』 또한 이극돈이 刊行하도록 지시하였다는 기록이다. 그리고 各道에 새로 간행한 書冊을 직접 進上하였다고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다. 이때가 1493년의 기록이므로 『新序』·『說苑』·『酉陽雜俎』는 이미 1493년 이전에 간행되었음이 확인된다. 『酉陽雜俎』가 성종 23년(1492)에 『唐段小卿酉陽雜俎』가 月城(慶州)에서 출판되었다는 기록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新序』와 『說苑』도 1492년이나 1493년에 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다.’¹⁴⁾ 그런데 조선 전기 출판목록을 기록한 『攷事撮要』에는 『說苑』이 등장하고, 『嶺南冊版記』에도 ‘劉向說苑, 壯紙二十二貼二張 墨三丁(安東郡)’¹⁵⁾이라는 사용한 종이와 먹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說苑』의 목록이 보인다. 하지만 『攷事撮要』와 『嶺南冊版記』에는 이극돈이 간행하도록 하였다는 『新序』에 대한 출판기록은 보이

13) 『成宗實錄』 卷二八五, 成宗24年12月, 己醜條. 한국고전종합DB(<http://db.itkc.or.kr/>)에서 인용.

14) 민관동, 「조선 출판본 『新序』와 『說苑』 연구」, 『中國語文論譯叢刊』 제29집, 2011. 163쪽.

15) 金致雨, 「『嶺南冊版記』所藏 刊本の 分類別 傾向」, 『書誌學研究』 제24집, 2002. 285쪽.

지 않는다.

『新序』와 『說苑』은 중국이나 한국에서 시대를 막론하고 거의 병칭되었고, 嚴靈峰은 ‘新序’가 책이름이 아니라 ‘新編’의 의미이기 때문에 『新序說苑』이 하나의 저작라고 주장하였다.¹⁶⁾ 그리고 중국에서도 明代에는 『新序』와 『說苑』 두 책이 종종 한 책으로 습간되기도 하였다.¹⁷⁾ 또한 朝鮮刊本 『劉向新序』와 『劉向說苑』은 판식이 완전히 일치하기 때문에 같은 시기에 같은 곳에서 간행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嶺南冊版記』에서 『說苑』의 출판지로 지목한 ‘安東’의 後彫堂의 경우 『劉向新序』下冊과 『劉向說苑』의 완질본을 함께 소장하고 있다. 後彫堂 소장본 『劉向新序』는 ‘補刻本’인데, 출판지인 安東지방에 남아 있던 ‘初刻本’의 원판을 보각하여 다시 인출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종합해보면, 『攷事撮要』나 『嶺南冊版記』에 『說苑』만 등장하는 것은 『新序』와 『說苑』을 同類로 취급하였기 때문에 『新序』라는 서명이 빠져있을 가능성이 있다.

朝鮮刊本 『劉向新序』는 10권 2책으로 되어있는데, 上冊은 「雜事一」·「雜事二」·「雜事三」·「雜事四」·「雜事五」 총5篇으로, 下冊은 「刺奢」·「節士」·「義勇」·「善謀上」·「善謀下」로 총5編으로 구성되어있다. 먼저 현존 판본의 목록을 제시하고 나서, 실물을 확인할 수 있는 판본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書名	版式事項	所藏處	所藏番號	비고
劉向新序	5卷1冊(零本, 卷1~5), 朝鮮木版本, 25.7×17.9cm, 四周雙邊, 半郭:18.5×14.7cm, 有界, 11行18字, 黑口, 內向黑魚尾, 紙質:楮紙	계명 대학교	(귀) 812.081 유향o-1	등록번호: A114566

16) 中國古籍全錄(<http://guji.artx.cn/>). 이런 주장이 무리한 면도 있지만, 원텍스트가 어떤 문장부호도 사용하지 않았음을 고려하면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치부할 수는 없다.

17) 姚娟, 「『新序』·『說苑』文獻研究」, 華中師範大學 博士學位論文, 2009. 29쪽.

書名	版式事項	所藏處	所藏番號	비고
劉向新序	5卷1册(零本, 卷1~5), 朝鮮木版本, 25.7×17.9cm, 四周雙邊, 半郭:18.5×14.7cm, 有界, 11行18字, 黑口, 內向黑魚尾, 紙質:楮紙	계명 대학교	(고) 812.081 유향○-1	등록번호: A117319
劉向新序	5卷1册(卷1~5), 朝鮮木版本, 半郭:18.7×15.1cm, 11行18字, 內向黑魚尾, 黑口, 內向黑魚尾	아단 문고	無	현재 열람 불가
劉向新序	2册, 29cm(이상을 제외하고는 상세한 판식 사항은 기재되어있지 않음)	일본 국회 도서관	請求記号 821-4	해당 사이트 (http://dl.ndl.go.jp/) 를 통해 원문 공개
劉向新序	1册(缺本), 朝鮮木版本, 27.5×19.7cm, 四周雙邊, 半郭:19.1×15cm, 11行18字, 上下黑魚尾, 紙質:楮紙	한국학 중앙 연구원	C15-61	마이크로필름만 열람과 출력이 가능
劉向新序	5卷1册(缺佚), 朝鮮木版本, 24.8×18.9cm, 四周雙邊, 半郭:18.5×14.8cm, 有界, 11行18字, 註雙行, 上下內向黑魚尾, 紙質:楮紙	경기 대학교	경기null-K 120969-2	열람과 사진촬영이 가능
劉向新序	5卷1册(卷6~10), 朝鮮木版本, 31×20cm, 四周雙邊, 半郭:18.5×15cm, 有界, 11行18字, 註雙行, 內向黑魚尾, 紙質:楮紙	安東市 臥龍面 金俊植	KS0432-1- 04-00393	현재 국학진흥원에 위탁 소장되어있음
劉向新序	原刻版 混入補字本, 5卷1册(缺佚), 朝鮮木版本, 26.2×18.8cm, 四周雙邊, 半郭:18.2×14.6cm, 有界, 11行18字, 上下小黑口, 內向黑魚尾	성암 고서 박물관	성암3-121	현재 박물관 폐쇄로 열람 불가
劉向新序	2卷1册, 朝鮮木版本, 24×17.5cm, 四周雙邊, 半郭:18.4×14.5cm, 有界, 11行18字, 大黑口, 內向黑魚尾, 紙質:楮紙	慶山郡 崔在石	韓國典籍綜 合調查目錄 第1輯	분실
劉向新序	4卷1册, 朝鮮木版本, 25.4×18cm, 四周雙邊, 半郭:18.3×14.6cm, 有界, 11行18字, 小黑口, 內向黑魚尾, 紙質:楮紙	榮豊郡 金用基	韓國典籍綜 合調查目錄 第1輯	분실

朝鮮刊本 『劉向新序』 上冊과 下冊의 완질을 소장한 곳은 일본국회도서관이 유일하다. 上冊만 소장한 곳은 계명대(2종)·아단문고이고, 下冊만 소장한 곳은 한국학중앙연구원·경기대학교·後彫堂·성암고서박물관이다.¹⁸⁾ 위의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版式狀況은 모두가 木版本이며 半郭은 판본간의 다소의 오차는 있지만 대략 18.5×15cm 내외이다. 또 모두가 四周雙邊이고 一葉 11行18字에 內向黑魚尾로 되어있으며 紙質은 모두 楮紙로 일치한다. 아래에서는 원문을 확인할 수 있는 판본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1. 朝鮮刊本 『劉向新序』 上冊

上冊의 경우, 원문을 확인할 수 있는 판본은 계명대 소장본 2종과 일본국회도서관 소장본이다. 아단문고 소장본은 한시적으로 열람을 제한하고 있는데, 지금은 열람을 할 수 없는 상태이다.¹⁹⁾ 계명대 소장본 2종은 필자가 원문 사진을 계명대도서관에서 제공받았고,²⁰⁾ 일본국회도서관 소장본은 해당 사이트²¹⁾에 원문이 공개되어있다.

계명대는 上冊만 2종을 소장하고 있다. 위의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소장번호는 같지만 그 앞에 (귀)와 (고)로 판본을 구분해 놓았고 등록번호도 다르게 되어있다. 이하에서는 등록번호가 ‘A114566’로 된 소장본은 ‘귀중본’으로, 등록번호가 ‘A117319’로 된 소장본은 ‘고본’으로 약칭한다. 귀중

18) 민관동은 기존 연구에서는 분실되어 행방을 알 수 없는 판본 2종(慶山郡 崔在石 所藏本, 榮豊郡 金用基 所藏本)을 제외하고 계명대학교 소장본 2종과 後彫堂 소장본 1종을 발굴하였는데, 필자는 이후에 여러 경로를 통해 그것들 이외 다른 5종(한국학중앙연구원·경기대학교·일본국회도서관·아단문고·성암고서박물관 소장본)의 존재를 확인하였다.

19) 아단문고 사이트에서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아단문고에서는 소장 자료를 더욱 안전하고 과학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해 2016년 9월 1일부터 서고의 정기 점검과 자료 보존 처리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 사업이 끝날 때까지 한시적으로 자료 열람 신청을 받을 수 없습니다.’(<http://www.adanmungo.org/>)

20) 계명대는 본 연구팀에 원문 전체의 사진을 제공하였기 때문에 연구대상으로 삼을 수 있었다. 그 사진은 편집되어있는데, 앞부분의 제1~4면과 뒷부분의 제122~134면은 귀중본으로 되어있고, 중간부분은 고본으로 되어있다.

21) 国立国会図書館(<http://dl.ndl.go.jp/>)

본은 훼손이 심지만 「目錄」과 「序」를 제외하고는 완정하며, 고본은 낙질된 부분들이 있지만 나머지부분의 보관 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귀중본의 표지에는 ‘丁丑重陽月改粧[改粧]²²⁾’이라고 적어놓았는데, ‘丁丑’의 정확한 年度는 확정할 수 없지만 원래의 표지를 새로운 표지로 바꾼 것은 확실하다. 책 자체를 새롭게 제본한 이유는 훼손이 심하였기 때문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앞부분의 일실된 「目錄」과 「序」를 제외하고 새로 제본한 본문의 제1~4면까지도 훼손이 심하여 글자를 알아볼 수 없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로 제본하기 전부터 「目錄」과 「序」가 일실되어 있었는지 아니면 훼손이 상당히 심각하여 제본하면서 빼버렸는지는 확정할 수 없다. 하지만 표지를 포함하여 「目錄」과 「序」도 훼손이 심해서 새로 제본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고본은 제71~72면 2면을 ‘補刻’하였는데, 이 두 면만 ‘四周雙邊’이 아니라 ‘四周單邊’으로 되어있다. 下冊에서도 부분적으로 ‘四周單邊’으로 된 면이 나타나는데, 이는 ‘補刻本’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귀중본은 모든 면이 ‘四周雙邊’으로 되어있으며 보각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初刻本’으로 볼 수 있다. 목판본은 초간본인지 재간본인지 판이 훼손되어 달라지기 전까지는 확인할 수 없다. 원판만 제대로 보존되어있다면 처음 찍은 것과 그 다음에 찍은 것은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初刻本’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그런데 귀중본은 글자가 몽그러진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初刻本’이기는 하지만 ‘初刊本’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初刻本’의 원판을 나중에 다시 인출해낸 것으로 추정된다.

귀중본은 제11면이 일실되어있는데, 반을 접어 한 면씩 제본한 형태에서 한 면만 일실되어있다. 이에 비해 고본은 제11~12면의 두 면 모두 완정하게 남아 있다. 그리고 귀중본과 고본은 제69~70면 그리고 제85~86면이 모두 일실되어있다. 또한 고본은 앞부분의 「目錄」과 「序」 그리고 본문의 제1~4면까지 일실되어있고 또한 뒷부분의 7장(제122~134면)도 일실되어있다. 고본의 경우 2013년 당시 목록에는 간행한 곳이 미상으로 되어있었는데, 최근에는 ‘安東’으로 수정해 놓았고 간행시기도 ‘1492년(成宗23)’으로 확정해 놓았다.²³⁾ 하지만 고본은 ‘補刻本’이기 때문에 간행년도를 ‘初刊本’이 간행

22) 이체자 ‘改粧’은 원본에 필사된 형태 그대로이고, ‘[]’안의 ‘改粧’은 정자이다.

된 ‘1492년’으로 확정된 것은 오류이며, 출간 시기는 특정할 수 없지만 ‘1492년’ 이후임이 확실하다.

일본국회도서관은 上冊과 下冊의 완질을 소장하고 있다. 실물을 대조해 보면 일본국회도서관 소장본이 위에 소개한 계명대 고본과 동일하기 때문에 朝鮮刊本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 소장본의 상세정보를 검색하면 ‘『国立国会図書館所蔵朝鮮關係資料目録 朝鮮本篇』 34頁左’라는 항목이 보이는데, 朝鮮刊本임을 명기해 놓았다. 이 판본은 계명대 귀중본과 고본에는 없는 「目録」과 「序」가 남아 있다. 그리고 제69~70면과 제71~72면을 ‘補刻’하였는데, 계명대 고본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四周雙邊’이 아니라 ‘四周單邊’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補刻本’임이 확실하다. 그리고 이 판본은 계명대의 귀중본·고본과 마찬가지로 제85~86면은 일실되어있다. 현재 실물을 확인할 수 있는 계명대의 귀중본과 고본 그리고 일본국회도서관 소장본은 모두 제85~86면이 누락되어있는 것이다. 이것은 맨 처음 판각할 때부터 누락된 것인지 아니면 그때는 있었지만 계명대 귀중본·고본과 일본국회도서관 소장본을 인출할 당시에는 판 자체가 사라진 것인지는 지금까지는 확인할 수 없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아단문고 소장본과 대조할 필요가 있지만 아쉽게도 이 판본은 현재 열람불가 상태이다. 일본국회도서관 소장본의 下冊은 글자가 몽그러진 부분들이 많아 연구에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2. 朝鮮刊本 『劉向新序』 下冊

下冊의 경우, 한국학중앙연구원·경기대·後彫堂·일본국회도서관 소장본은 원문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본은 실물의 열람은 불가능하고 원문 전체를 마이크로필름으로 볼 수 있게 되어있다. 김준식 집안은 본 연구팀에 後彫堂 소장본의 원문을 복사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해주었다. 그리고 경기대는 소장본의 복사는 불가하지만 사진 촬영을 허가해 주었다. 일본국회도서관 소장본의 下冊은 글자가 몽그러진 부분들이 많아 연구에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23) 이런 수정의 근거는 민관동의 논문을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본은 표지가 상당히 낡았고 우측 전체와 그 위아래 모서리 부분이 많이 닳아있지만, 원문의 인쇄상태는 대체로 양호하다. 또한 補刻한 면이 하나도 없이 모두 ‘四周雙邊’으로 되어있다. 그런데 제 84~85면이 일실되어있는데, 경기대·後彫堂·일본국회도서관 소장본에는 해당 2면이 모두 ‘四周雙邊’으로 인쇄되어있으므로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본만 일실되어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일실된 부분도 補刻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판본 전체적으로 보각한 면이 하나도 없으므로 ‘初刻本’이 확실하다.

경기대 소장본은 앞표지가 전체적으로 낡은 상태이며 좌측하단에는 구멍이 뚫려 있고, 맨 뒤의 표지는 아예 떨어져 나간 상태이다. 또한 전체적인 크기가 다른 판본들에 비해 작은 편인데, 아마도 테두리 부분이 낡아서 잘라낸 것으로 보인다. 이 소장본의 전체적으로 많이 낡았지만 원문의 인쇄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그러나 간혹 글자가 뭉그러진 부분도 보인다. 그런데 이 소장본도 補刻한 면이 하나도 없으며 모든 면이 ‘四周雙邊’으로 된 ‘初刻本’이다. 이 소장본은 제1면이 일실되어있는데 해당 면을 필사하여 제2면의 뒷면에 붙여놓아 제1면을 보충해놓았다. 또한 제63~64면도 일실되어있는데, 해당 2면을 필사하여 놓았다. 특이한 것은 필사해놓은 면이 원판과 동일하게 11행 18자로 되어있으며 내용 또한 원판과 동일하다. 이를 보면 참고해서 베껴쓸 만한 다른 朝鮮刊本이 존재하였음을 확정할 수 있다. 이 외에 제37~38면은 일실되어있으나 따로 필사해놓지는 않았다.

後彫堂 소장본은 보관 상태는 양호하지만 부분적으로 글자들이 뭉그러진 부분들이 보인다. 일본국회도서관 소장본과 동일한 면에서 글자들이 뭉그러진 것으로 보아 원판 자체가 훼손되었기 때문임을 확인할 수 있다. 後彫堂 소장본은 한국학중앙연구원·경기대 소장본과는 다르게 ‘補刻’한 면들이 보이는데, 上冊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해당 면이 ‘四周雙邊’이 아니라 ‘四周單邊’으로 되어있다. 해당 면은 제9~10면·제63~64면·제87~88·제107~108면 네 군데이다. 일본국회도서관 소장본도 後彫堂본과 동일한 면들이 보각된 판으로 인쇄되어있다.

이상 실물을 확인할 수 있는 판본들에서 下冊의 동일한 제107면을 서로 대조하여 보기로 한다. 일본국회도서관 소장본은 後彫堂 소장본과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後彫堂 소장본의 사진만 제시한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본

경기대학교 소장본

後彫堂 소장본

이 사진들을 비교해보면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본에는 글자가 몽그러진 부분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²⁴⁾ 경기대 소장본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본과 같은 판이기는 하지만 왼쪽 가운데 부분의 글자들이 몽그러져 있기 때문에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본에 비해 나중에 인출한 것임을 알 수 있다. 後彫堂 소장본과 일본국회도서관 소장본은 인쇄상태는 앞의 두 판본에 비해 깨끗하지만 아예 판 자체가 다르다. 해당 면이 ‘四周單邊’으로 되어있고, 제5행에서 문단이 끝난 후에 앞의 판본 2종에서는 15자에 해당하는 부분을 모두 비워두었는데, 후각본인 後彫堂 소장본에서 그 빈칸이 모두 긴 화살표처럼 검게 인쇄되어있다. 경기대 소장본은 글자들이 몽그러진 것이 보이는데 원판이 훼손되었기 때문에 後彫堂 소장본을 인출한 당시에는 해당 면을 다시 판각하여 보충해 넣은 것임을 유추할 수 있다.

위의 판본들을 비교해보면 한국학중앙연구원·경기대 소장본은 ‘初刻本’이고 後彫堂·일본국회도서관 소장본은 ‘補刻本’이 확실하다. 그런데 경기대 소장본은 ‘初刻本’이라고 하더라도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본에 비해 후에 인출한 것이고, 後彫堂·일본국회도서관 소장본은 앞의 두 판본을 찍어낸 원판을 보각하여 인출한 것이다. 남아 있는 4종의 판본들을 대조해보면 적어도 3회에 걸쳐 인쇄가 이루어졌음은 확정할 수 있다.

24) 위부분의 글자가 흐릿하지만 마이크로필름을 출력할 때 명도를 조절할 수 있게 되어있어서 진하게 출력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성암고서박물관 소장본이다. 이 소장본의 목록에서는 출판지를 ‘安東’으로 명기하였는데, 원문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무엇을 근거로 출판지를 확정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한국학중앙연구원·경기대·後彫堂·일본국회도서관 소장본에는 모두 「跋」이나 ‘刊記’에 대한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있지 않다. 그런데 성암고서박물관 소장본이 출판지를 ‘安東’으로 명기한 것은 그 판본에는 「跋」이나 ‘刊記’를 따로 필사된 내용이 있기 때문인지 기타 자료들을 참고한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

Ⅲ. 朝鮮刊本の 판식과 문헌의 특징

朝鮮刊本은 四部叢刊本과 비교하면 판식과 모든 면의 내용이 일치할 뿐만 아니라 字數가 ‘18字’가 아닌 부분과 小字註가 등장하는 부분까지 완전히 일치한다. 그런데 몇 부분이 다른 경우가 있는데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밝힌다.

1. 卷首題·卷尾題와 문단의 형식

朝鮮刊本 『新序』는 ‘卷首題’가 『劉向新序』로 되어있다. 上冊의 맨 앞부분 제목은 제1행에 「劉向新序目錄」으로 되어있다. 그리고 제2~6행에 걸쳐 목차가 이어지는데, 목차의 실제 제목은 다음과 같다. 卷第一 雜事一 卷第二 雜事二(제2행), 卷第三 雜事三 卷第四 雜事四(제3행), 卷第五 雜事五 卷第六 刺[刺]²⁵奢(제4행), 卷第七 節[節]²⁶土上 卷第八 節土下(제5행), 卷第九 善

25) 刺의 이체자. 왼쪽부분의 ‘束’의 형태가 ‘東’의 형태로 되어있다. 朝鮮刊本과 四部叢刊本 판본 전체적으로 많은 이체자를 사용하였는데, 이하에서는 원문의 이체자를 그대로 사용한 후 자형에 대해서는 설명을 달지 않고 ‘[]’안에 정자를 표기한다.

26) 節의 이체자. 아랫부분 왼쪽의 ‘𠂔’이 ‘𠂔’의 형태로 되어있으며 머리의 ‘々々’이 글자 전체를 덮고 있지 않고 ‘𠂔’의 위에만 있다. 그런데 이 이체자는 ‘刺[刺]’와는 다르게 ‘문자표’에는 나오지 않아서 필자가 ‘GlyphWiki(<http://ko.glyphwiki.org/>)’

謀[謀]上²⁷⁾ 卷第十 善謀下(제6행). 제목은 「劉向新序目錄」으로만 되어있지만, 목록에 이어서 제7행부터 제4면의 제3행까지 曾鞏(1019~1083)이 쓴 「序」가 실려 있다.

그 다음 제1면의 제목은 제1행에 「劉向新序卷第一」로 되어있다. 제2행에 서는 세 칸을 들여 쓰고 나서 「雜事一」이라는 제목이 실려 있으며 제3행부터는 본문이 시작된다. 이하에서 각 권의 卷首題은 모두 이런 형식으로 되어있다. 「卷第一」은 제21면이 제4행에서 글이 끝나고, 나머지 6행이 빈칸으로 되어있으며 맨 마지막 행인 제11행에는 卷尾의 제목이 「劉向新序卷第一」로 되어있다. 그리고 그 다음 면인 제22면에는 아무 내용도 없이 계선만 인쇄되어있다. 이하에서도 각 권은 모두 홀수 면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홀수 면에서 내용이 끝나면 그 다음 짝수 면 한 면은 모두 비워두었다.

「劉向新序卷第二」은 제23면에서 시작하여 제49면 제8행에서 끝나고 나머지 2행을 비워두고 제11행에 「劉向新序卷第二」라는 제목이 인쇄되어있다. 또한 「劉向新序卷第二」도 홀수 면인 제49면에서 끝났기 때문에 짝수 면인 제50면은 계선만 인쇄되어있고 해당하는 한 면이 모두 비어 있다.

「劉向新序卷第三」은 제51면에서 시작하여 제73면 제2행에서 끝나고 나머지 8행을 비워두고 제11행에 「劉向新序卷第二」라는 제목이 인쇄되어있다. 그런데 卷尾의 제목이 「劉向新序卷第三」이 아니라 「劉向新序卷第二」로 되어있다. 四部叢刊本에는 ‘三’으로 되어있는데, 朝鮮刊本도 원래는 ‘三’으로 되어있어야 하지만 계명대 고본에는 ‘二’로 잘못되어있다. 계명대 귀중본과 일본국회도서관 소장본은 모두 ‘二’의 중간에 붓으로 가필하여 ‘三’으로 만들어놓았다. 원래부터 誤字인지 판각 후에 중간의 가로획(一)이 훼손된 것인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또한 「劉向新序卷第三」도 홀수 면인 제73면에서 끝났기 때문에 짝수 면인 제74면은 계선만 인쇄되어있고 한 면이 모두 비어 있다.

「劉向新序卷第四」는 제75면에서 시작하여 제102면 제3행에서 끝나고 나머지 7행을 비워두고 제11행에 「劉向新序卷第四」라는 제목이 인쇄되어있

에서 직접 만들었으며 ‘그림’ 형태로 되어있다.

27) 下冊에 있는 「卷第九」의 편목은 실제로 「善謀」라고 되어있고 ‘上’이란 글자는 빠져 있다.

다. 「卷第四」는 짝수 면에서 끝났기 때문에 다음 면에서 다음 권인 「卷第五」가 바로 시작된다.

「劉向新序卷第五」는 제103면에서 시작하여 제134면 제8행에서 끝나고 2행을 비워두고 제11행에 「劉向新序卷第五」라는 제목이 인쇄되어있다. 그런데 四部叢刊본은 권미의 제목이 「劉向新序卷第五」로 되어있는데, ‘弟’는 ‘第’의 誤字이다. 上冊은 「卷第五」를 끝나고 「卷第六」에서 下冊이 시작된다.

下冊은 「劉向新序卷第六」은 제1면에서 다시 시작하여 제10면 제9행에서 끝나고 나머지 1행을 비워두고 제11행에 「劉向新序卷第六」이라는 제목이 인쇄되어있다.

「劉向新序卷第七」은 제11면에서 시작하여 제46면 제7행에서 끝나고 나머지 3행을 비워두고 제11행에 「劉向新序卷第七」이라는 제목이 인쇄되어 있다.

「劉向新序卷第八」은 제47면에서 시작하여 제57면 제8행에서 끝나고 나머지 2행을 비워두고 제11행에 「劉向新序卷第八」이라는 제목이 인쇄되어 있다. 또한 「劉向新序卷第八」은 홀수 면인 제57면에서 끝났기 때문에 上冊과 마찬가지로 짝수 면인 제58면은 계선만 인쇄되어있고 한 면이 모두 비어 있다.

「劉向新序卷第九」의 본문은 제59면에서 시작되는데, 제목은 上冊의 목차와는 다르게 ‘上’이라는 글자 없이 「善謀第九」로만 되어있다. 「卷第九」는 제89면 제11행에서 끝난다. 그리고 제90면의 앞의 10행이 모두 비어 있고, 「劉向新序卷第九」라는 제목만 제11행에 인쇄되어있다.

「劉向新序卷第十」은 제91면에서 시작되는데, 제목은 上冊의 목차와 같이 「善謀下第十」로 되어있다. 「卷第十」은 제125면의 제2행에서 끝나고 나머지 10행은 비어 있으며 제11행에 「新序卷之十」이라는 제목이 인쇄되어 있다. 각 卷의 卷尾 제목은 「劉向新序卷第〇」의 형태로 되어있고, 第一卷~第九卷까지는 이런 형식을 유지하였다. 그런데 ‘第十卷」에서는 ‘劉向」이라는 글자가 빠져 있고 ‘第’字도 ‘之’字로 되어있다. 「劉向新序卷第十」은 홀수 면인 제125면에서 끝났기 때문에 짝수 면인 제126면은 계선만 인쇄되어있고 한 면이 모두 비어 있다.

2. 字數 不定

위에서 제시한 모든 목록에는 字數가 ‘11行18字’로 되어있으나, 실제 판본 상에는 ‘18字’가 아닌 곳들이 여러 군데 등장한다. 字數가 不定한 해당 면과 行의 字數를 아래에 표로 제시한다.

上册						
面數	行數	字數		제92면	제4행	16자
제19면	제4행	19자		제92면	제5행	17자
제19면	제5행	17자		제92면	제6행	17자
제41면	제8행	19자		제92면	제7행	17자
제45면	제11행	20자		제92면	제9행	17자
제59면	제10행	19자		제92면	제10행	17자
제59면	제11행	19자		제92면	제11행	17자
제70면	제5행	19자		제100면	제8행	19자
제77면	제4행	20자		제105면	제11행	19자
제77면	제5행	19자		제106면	제1행	19자
제77면	제6행	19자		제106면	제2행	20자
제77면	제7행	19자		제106면	제3행	20자
제77면	제8행	19자		제106면	제6행	17자
제77면	제9행	19자		제106면	제7행	17자
제77면	제10행	19자		제106면	제8행	17자
제91면	제8행	19자		제106면	제9행	17자
제91면	제9행	17자		제106면	제10행	17자
제91면	제10행	16자		제112면	제11행	20자
제91면	제11행	17자		제116면	제6행	19자
제92면	제2행	17자		제116면	제7행	19자
제92면	제3행	17자		제120면	제11행	19자

下册						
面數	行數	字數		제82면	제4행	20자
제50면	제5행	19자		제92면	제8행	17자
제53면	제11행	17자		제95면	제11행	19자
제61면	제7행	19자		제113면	제3행	19자
제76면	제6행	17자				

이상에서 제시한 字數가 不定한 경우는 朝鮮刊本과 四部叢刊本은 정확히 일치한다. 그런데 두 판본에서 오직 한 곳만이 다른 경우가 있다. 제118면

의 제11행이 그것인데, 朝鮮刊本은 ‘世利孝文皇帝嘗“一”屯天下之精兵於溪管廣’ 되어있고, 四部叢刊本은 따옴표로 표시한 ‘一’이 빠져 있다. 四部叢刊本은 ‘一’이 누락되어있기 때문에 朝鮮刊本에 비해 한 글자가 적은 17자로 되어있는 것이다. 龍溪精舍本은 朝鮮刊本과 동일하게 ‘一’이 누락되어있지 않다. 여기서는 ‘일시에’²⁸⁾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朝鮮刊本이 맞고 四部叢刊本은 ‘一’이 누락된 오류를 범하고 있다.

3. 小字註

上冊의 경우, 어떤 소장처도 위에 제시한 목록에서 ‘註雙行’이라고 명기한 곳이 없는데, 판본에는 실제로 小字註가 雙行으로 된 곳이 있다. 제 30면 제1행의 ‘國有餓民’이라는 세로쓰기이기 때문에 원문 바로 아래의 제 6-7자 해당하는 부분에【一本作下民多飢】라는 주석이 雙行的 작은 글자로 달려 있다. 四部叢刊本도 朝鮮刊本과 동일하게 해당 면의 해당 행에 小字註가 雙行으로 달려 있다. 朝鮮刊本의 上冊에서는 유일하게 이곳에만 雙行的 小字註가 달려 있어서, ‘註雙行’이라고 명기하지 않은 것은 목록작성자가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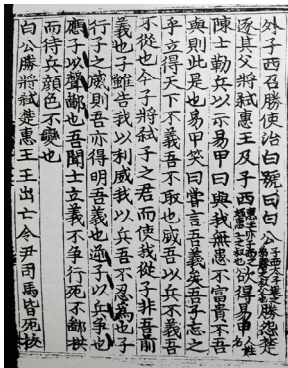
필자는 윗글에서 실물을 확인할 수 있는 朝鮮刊本 3종(계명대 귀중본·고본과 일본국회도서관 소장본) 모두 제85~86면은 일실되어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런데 四部叢刊本에는 바로 이 부분 중 제86면에 小字註가 출현한다. 해당부분은 ‘惡是何可【太上御名】’이라고 되어있는데, 제6행의 제16자 해당하는 부분에 괄호 안의 내용이 雙行的 小字註로 인쇄되어있다. 下冊에서도 여러 군데 雙行的 小字註가 등장하는데, 朝鮮刊本과 四部叢刊本은 해당부분과 내용이 완전히 일치한다. 그러므로 朝鮮刊本에도 일실된 면의 내용이 四部叢刊本과 동일할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기 때문에 제86면의 ‘小字註’도 원판에는 들어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下冊은 上冊과 다르게 ‘註雙行’이라고 명기한 목록이 보이는데, 경기대 소장본과 後彫堂 소장본이 그것이다. 上冊에서는 일실된 부분을 제외하면 小字註가 한 군데밖에 나오지 않는 데 비해 下冊에서는 이런 雙行的 小字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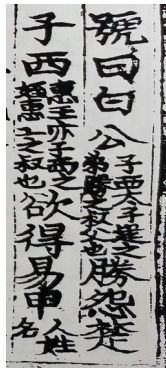
28) 劉向 原著, 李華年 譯註, 『新序全譯』, 貴州人民出版社, 1994. 377쪽.

가 몇 군데에 달려 있다. 그래서 해당 소장처에서 목록을 작성할 때 비교적 쉽게 눈에 띄었을 것으로 보인다. 下冊에서는 제50면 ‘至於田甲[田甲中牟之邑人也]’에 처음으로 小字註가 등장한다. 괄호 안의 내용이 제3행의 제 16~18자 해당하는 부분에 雙行으로 달려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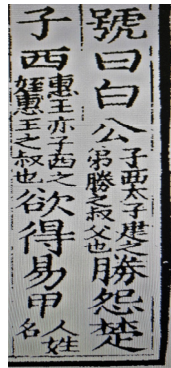
그 다음 면인 제51면에는 주석이 세 군데나 출현하는데, 판본의 사진을 제시함으로써 ‘雙行 小字註’ 형식의 실체를 살펴보도록 한다.



朝鮮刊本(한국학중앙연구원)



朝鮮刊本



四部叢刊本

위의 첫 번째 사진을 보면 제51면의 제1행과 제2행에 걸쳐 雙行의 小字註가 인쇄되어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부분의 내용은 ‘號曰白公[子西太子建之弟勝之叔父也]。勝怨楚逐其父，將弑惠王及子西[惠王亦子西之姪惠王之叔也]，欲得易甲[人姓名]’으로 되어있다. 첫 번째 小字註는 제1행의 제 13~15자 해당하고, 두 번째는 제2행의 제11~13자 해당하며, 세 번째는 제2행의 제18자 해당한다. 두 번째 사진은 그 부분을 확대한 것인데 본문의 한글자에 해당하는 부분에 주석이 雙行의 작은 두 글자로 달려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세 번째는 四部叢刊本の 사진인데 朝鮮刊本の 동일한 면의 동일한 부분에 해당한다. 두 판본의 글자체는 다르지만 형식과 내용이 완전히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주석 부분의 글자가 다른 것이 두 군데 있다. 첫 번째 주석【子西太子建之‘弟’勝之叔父也】에서 朝鮮刊本은 ‘弟’로 되어있는데, 四部叢刊本은 ‘弟’로 되어있다. 두 번째 주석【惠王亦

子西之姪惠‘ㄱ’之叔也】에서 朝鮮刊本은 ‘ㄱ’의 형태로 되어있는데, 四部叢刊本은 ‘王’으로 되어있다. 물론 朝鮮刊本の 불완전한 형태로 되어있는 ‘ㄱ’字는 ‘王’의 誤字이다.

이어서 제76면에도 세 군데에 雙行의 小字註가 출현한다. 해당부분의 내용은 ‘有取滿[滿]【史記作蒲、衍、首、垣、以臨仁、平丘、黃、濟陽、甄[甄]【史作嬰]城、而魏氏服、王又割濮、歷【史記作磨】之’로 되어있다. 첫 번째 주석은 제9행의 제4-5자의 두 글자에 해당하는 부분을 차지하는데, 작은 두 글자가 원문의 큰 두 글자에 해당하는 부분에 적혀 있기 때문에 글자 사이의 공간이 넓다. 두 번째 주석은 제9행의 제18자의 한 글자에 해당하는 부분을 차지하는데, 바로 위의 주와 비교하여 작은 두 글자가 원문의 큰 한 글자에 해당하는 부분에 적혀 있기 때문에 글자 사이의 공간이 좁다. 세 번째 주석은 제10행 제11~12자의 두 글자에 해당하는 부분을 차지하는데, 작은 두 글자가 원문의 큰 두 글자에 해당하는 부분에 적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주석처럼 글자 사이의 공간이 넓다.

제79면에는 ‘齊人南面【史記南圃攻楚】’라고 되어있는데, 괄호 안의 주석은 제11행의 제13~14자의 두 글자에 해당하는 부분을 차지하며, 그 부분에 작은 글자의 주가 세 글자씩 雙行으로 달려 있다.

제81면에는 ‘王之地一杼【史作經】兩海’라고 되어있는데, 제3행의 제4~5자의 두 글자에 해당하는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서도 작은 두 글자가 원문의 큰 두 글자에 해당하는 부분에 적혀 있기 때문에 글자 사이의 공간이 넓다.

이상에서 살펴본 雙行의 小字註가 달린 부분은 朝鮮刊本과 四部叢刊本이 정확히 일치한다.

4. 빈칸

朝鮮刊本에는 두 종류의 빈칸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아무 것도 인쇄되지 않은 형태로 되어있는 글자가 빠진 빈칸이고, 다른 하나는 검은 색으로 인쇄된 빈칸이다. 四部叢刊本에는 빈칸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하에서 살펴볼 빈칸은 朝鮮刊本만의 특징이다. 이런 빈칸은 誤字를 수정하기 위해서거나 판각할 때의 오류 때문에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

(1) 上册

- 1) ‘百姓□□, 社稷無主’(제8면 제11행 제17~18자) 朝鮮刊本 중에 고본과 일본국회도서관 소장본에는 두 글자에 해당하는 부분이 흰 빈칸으로 되어있고, 귀중본은 그 빈칸에 ‘未寧’이라고 필사해놓았다. 四部叢刊本에는 ‘絕望’으로 되어있다. ‘絕望(희망이 끊기다)’과 ‘未寧(편안하지 않다)’은 의미가 통하기는 하지만, 귀중본이 무엇을 근거로 빈칸에 ‘未寧’이라고 필사해놓았는지 명확하지 않다.
- 2) ‘衆人之唯唯, 不■周舍之諤諤’(제11면 제1행 제8자) 귀중본은 이번면(제11면)이 일실되어서 참고할 수 없는데, 고본은 검은 빈칸 옆에 ‘若’자를 필사해놓았다. 四部叢刊本에는 ‘如’로 되어있다. 고본에 필사해놓은 ‘若’은 ‘如’와 뜻이 통하는데, 무엇을 근거로 빈칸에 ‘若’자를 필사해놓았는지 명확하지 않다.
- 3) ‘而逐翟黃, ■起而出’(제11면 제10행 제4자) 四部叢刊本에는 빈칸에 해당하는 글자가 ‘黃’로 되어있다.
- 4) ‘臣聞之, ■君仁, 其臣直’(제11면 제11행 제4자) 四部叢刊本은 빈칸에 해당하는 글자가 ‘其’로 되어있다.
- 5) ‘襲不與其君, 而□□□□, 何也?’(제34면의 제16~18자와 제35면의 제1자) 계명대의 두 판본은 모두 이 네 글자에 해당하는 부분에 손으로 네 글자를 적어놓았고, 일본국회도서관 소장본은 네 글자에 해당하는 부분이 모두 빈칸으로 되어있다. 계명대 귀중본은 ‘與其行者’이라고 적어놓았고, 고본은 ‘反[反]又撫[撫]矢’로 적어놓았다. 四部叢刊本에는 ‘顧與他人’로 되어있다. 계명대의 두 판본은 다른 판본을 참고하여 적어놓은 것이 아니라 필사자가 임의로 뜻에 맞추어 적어놓은 것으로 보인다.
- 6) ‘臣■列王者之事, 君人之法’(제54면 제11행 제1자) 四部叢刊本에는 빈칸에 해당하는 글자가 ‘請’으로 되어있다. 그런데 귀중본은 빈칸 위에 ‘請’이란 글자를 적어놓았으며, 고본은 검은 빈칸을 그대로 두었다.
- 7) ‘然後□王之君興(興)焉’(제134면 제7행 제6자) 四部叢刊本에는 빈칸에 해당하는 글자가 ‘賢’으로 되어있다.
- 8) ‘故有道□之不戮也’(제134면 제8행 제6자) 四部叢刊本에는 빈칸에

해당하는 글자가 ‘者’로 되어있다.

(2) 下冊

- 1) 下冊에서는 제10면에 빈칸이 처음 등장하는데,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본과 後彫堂 소장본이 다른 형태로 되어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본에는 ‘周諺曰：『囊漏貯中。』’으로 제대로 인쇄가 되어있고 경기대 소장본은 글자가 뭉그러져 있지만 빈칸으로 되어있지는 않다. 그런데 後彫堂과 일본국회도서관 소장본은 ‘囊漏’라는 두 글자가 검은 색 빈칸인 ‘■’으로 인쇄되어있다. 윗글에서 지적하였듯이 한국학중앙연구원과 경기대 소장본은 ‘初刻本’이고 後彫堂과 일본국회도서관 소장본은 해당 면을 補刻한 ‘補刻本’이다. 이를 보면 ‘初刻本’은 해당부분이 제대로 되어있는데, ‘補刻本’에 이르러서는 빈칸으로 인쇄된 것이다. 이곳을 제외하고는 下冊에서 補刻된 면에는 빈칸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하에서 빈칸이 나오는 곳은 ‘初刻本’과 ‘補刻本’이 모두 동일하다.
- 2) ‘此吾所以不受■’ (제29면 제1행 제16자) 四部叢刊本에는 빈칸에 해당하는 글자가 ‘也’로 되어있다.
- 3) ‘秦國患之, 使張儀之■’ (제29면 제10행 제1자) 四部叢刊本에는 빈칸에 해당하는 글자가 ‘楚’로 되어있다.
- 4) ‘上及令子■, 司馬子椒’ (제29면 제11행 제1자) 四部叢刊本에는 빈칸에 해당하는 글자가 ‘蘭’의 이체자인 ‘蘭’으로 되어있다.
- 5) ‘齒[齒]落於■, 絕吭而死’ (제48면 제10행 제1자) 四部叢刊本에는 빈칸에 해당하는 글자가 ‘口’로 되어있다.
- 6) ‘戰克而王享, 吉□大焉’ (제60면 제11행 제18자) 四部叢刊本에는 빈칸에 해당하는 글자가 ‘謀’로 되어있는데, 판본 전체적으로 거의 이체자 ‘謀’만 사용하였지만 여기서만 정자를 사용하였다.
- 7) ‘故春秋美而褒[褒]之.■’ (제68면 제11행 제18자) 四部叢刊本은 제17자에서 문단이 끝나기 때문에 한 글자에 해당하는 부분을 빈칸으로 두었다. 그런데 朝鮮刊本에는 그냥 빈칸이 아니라 검은 빈칸인 ‘■’으로 인쇄되어있다.
- 8) ‘利不百不變法, 功不■不易器[器]’ (제71면 제1행 제18자) 四部叢刊本

에는 빈칸에 해당하는 글자가 ‘什’으로 되어있다.

- 9) ‘■聞之法古無過’(제71면 제2행 제4자) 四部叢刊本에는 빈칸에 해당하는 글자가 ‘臣’으로 되어있다.
- 10) ‘君無疑■■■■公曰’(제71면 제9행 제14~16자) 세 개의 검은 빈칸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연이어 붙어 있는 형태로 되어있는데, 四部叢刊本에는 빈칸에 해당하는 글자가 ‘矣孝公’로 되어있다.
- 11) ‘都彭城, ■■■義帝約’(제93면 제6행의 제12~13자) 두 개의 검은 빈칸이 연이어 붙어 있는 형태로 되어있는데, 四部叢刊本에는 빈칸에 해당하는 글자가 ‘又背[背]’ 두 글자로 되어있다.
- 12) ‘今[今]大王誠■■其道’(제93면 제10행 제17자), 四部叢刊本에는 빈칸에 해당하는 글자가 ‘反[反]’으로 되어있다.
- 13) ‘張子房之謀也。■’(제104면 제3행 제18자) 四部叢刊本은 제17자에서 문단이 끝나기 때문에 한 글자에 해당하는 부분을 빈칸으로 두었다. 그런데 朝鮮刊本은 그냥 빈칸이 아니라 검은 빈칸인 ‘■’으로 인쇄되어있다.

5. 誤脫字

필자는 윗글에서 朝鮮刊本과 四部叢刊本의 동일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있으며, 글자가 다른 부분이 있음도 확인하였다. 그런데 두 판본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기 때문에 두 판본이 서로에게 영향 관계가 없다면 동일한 ‘母本’을 사용하여 ‘覆刻’한 것 같다. 이하에서는 朝鮮刊本의 誤脫字를 살펴볼 것인데,²⁹⁾ 오류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은 판본은 현재 善本으로 인정받고 있는 ‘鐵華館本’을 저본으로 출간한 ‘龍溪精舍叢書本’³⁰⁾이며, 林東錫 譯註

29) 본 논문을 처음에 기획할 당시에는 朝鮮刊本과 四部叢刊本의 오류를 비교하려고 하였으나, 지면이 너무 많이 늘어나 이하에서는 四部叢刊本의 오류는 차치하고 朝鮮刊本의 오류만 살펴볼 것이다. 四部叢刊本에서 찾아낸 오류는 이후에 출간될 저서에서 다루기로 한다.

30) 필자는 참고한 ‘龍溪精舍叢書本’은 ‘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https://ctext.org/zh>)’이란 사이트에서 원문의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龍溪精舍本’으로 약칭한다.

의 『신서』와 李華年 譯註의 『新序全譯』이다.

(1) 上册

- 1) ‘故孔子曰：「朝聞[道]，夕死可矣。於以“聞”後嗣」(제7면 제2행 제17자와 제18자 사이 그리고 제3행 제6자) 朝鮮刊本은 ‘[]’로 표시한 道자가 빠져 있는데, 『論語』에는 ‘朝聞道’로 되어있기 때문에 朝鮮刊本이 ‘道’자를 쓰지 않은 것은 오류이다. 그리고 이어진 문장에서 ‘聞’으로 되어있는데, ‘열다’³¹⁾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聞’은 誤字이다.
- 2) ‘且“齊[齊]”戒不敬耶’(제12면 제4행 제10자) 여기서는 ‘齋戒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³²⁾ ‘齊[齊]’는 誤字이다.
- 3) ‘以當“疆”敵’(제14면 제5행 제11자) 朝鮮刊本은 ‘疆’과 ‘強’을 간혹 통용하고 있으나 여기서는 ‘強敵’이기 때문에 ‘疆’은 ‘疆’의 誤字라고 볼 수 있으나, 둘은 通假字로 볼 수도 있다.
- 4) ““大”師知之’(제16면 제3행 제1자) 여기서 ‘太師’는 ‘궁중의 음악을 맡은 악사. 삼공의 지위 중 최고의 관직’(『신서1』, 100쪽)이다. ‘大’와 ‘太’는 의미가 같지만 여기서는 관직명이기 때문에 바꿔 쓸 수 없으므로 ‘大’는 誤字이다.
- 5) ‘五月而宜陽“末”拔’(제27면 제9행 제11자) 여기서 ‘末’는 ‘않았다’라는 부정부사로 쓰였기 때문에 ‘末’은 誤字이다.
- 6) ‘魯君“子”之’(제29면 제3행 제13자) 여기서는 ‘주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子’를 쓰는 것이 맞고 ‘子’는 誤字이다.
- 7) ‘蓋[蓋]聞“困”倉粟有餘者’(제29면 제11행 14자) 여기서 ‘困’은 ‘원형의 곡식창고’(『신서1』, 148쪽과 『新序全譯』, 47쪽)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困’은 ‘困’의 誤字이다.
- 8) ‘行“比”令未半旬’(제34면 제3행 제10자) 여기서는 ‘이러한’(『신서1』,

31) 劉向 原著, 李華年 譯註, 『新序全譯』, 貴州人民出版社, 1994. 46쪽. 이하에 이 책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따로 주를 달지 않고 괄호 안에 書名과 쪽수만 표시한다.

32) 劉向 撰, 林東錫 譯註, 『신서1』, 동서문화사, 2009. 71쪽. 이하에서 번역은 모두 이 책을 참고하였으며, 이하에 이 책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따로 주를 달지 않고 괄호 안에 書名과 쪽수만 표시한다.

159쪽)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比’는 誤字이다.

- 9) ‘蔡侯[侯]之[事猶其小者也, 今君王之事, 遂以左州侯, 右夏侯], 從新安君與壽陵君’(제42면 제3행 제6자에서 제7자 사이) 朝鮮刊本은 ‘[]’로 표시한 부분의 내용이 빠져 있어서 앞뒤 문맥이 통하지 않는다. ‘[]’로 표시한 부분은 모두 19자에 해당하는데, 아예 한 행(18자) 정도가 통째로 빠져 있다. 해당 부분은 龍溪精舍本을 근거로 보충하였다.
- 10) ‘若不知其“喪”盡’(제42면 제11행 제1자) 여기서는 ‘속(安)’(『신서1』, 186쪽)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喪[喪]’은 誤字이다.
- 11) ““楊[楊]”激楚之遺風’(제47면 제7행 제17자) 여기서는 ‘激揚하다’(『신서1』, 197쪽)라는 뜻이기 때문에 ‘楊[楊]’은 誤字이다.
- 12) ‘觸之者“龍”種而退耳’(제53면 제10행 제12자) 여기서 ‘隴種’은 ‘잃어버리고 실패하여 용기를 잃은 모습’(『신서1』, 215쪽과 『新序全譯』, 77쪽)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龍[龍]’은 誤字이다.
- 13) ‘欲“法”之’(제58면 제10행 제8자) 여기서는 ‘그(樂毅)를 제거하다’(『신서1』, 228쪽)라는 뜻이기 때문에 ‘法’은 ‘去’의 誤字이다.
- 14) ‘敢謁其願“而而”君弗肯[肯]聽也’(제59면 제7행 제1·2자) ‘而’를 연이어 ‘而而’로 사용하였는데, 여기서 ‘而’는 역접의 접속사 역할을 함으로 반복해서 사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而而’는 오류로 같은 글자 하나를 더 첨가한 것이다.
- 15) ‘柳[柳][季]下曰’(제61면 제8행 제2자와 제3자 사이) 여기서 柳下季는 ‘春秋時代 魯나라 사람’(『신서1』, 239쪽)이므로 ‘季’자가 누락되어있다.
- 16) ‘此“一”國豈拘於俗’(제69면 제6행 제3자) 여기서는 앞서 언급한 ‘秦’과 ‘齊’ 두 나라를 가리키기 때문에(『신서1』, 247쪽) ‘一’은 誤字이다.
- 17) ‘是以聖王覺“悟”’(제69면 제10행 제15자) 여기서는 ‘깨닫다’(『신서1』, 248쪽)라는 뜻이기 때문에 朝鮮刊本の ‘悟’는 誤字이다. 그런데 윗글에서 밝혔듯이 계명대 귀중본과 고본은 제69~70면이 일실되어있으며, 일본국회도서관 소장본은 해당 면을 ‘補刻’하였다. 그래서 ‘初刻本’인 계명대 귀중본에도 오류가 있었는지 아니면 ‘初刻本’은 제대로 되어있는데 ‘補刻本’만 오류가 있는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

- 18) ‘蟪蛄木根“抵[抵]”輪“困”離音’(제71면 제2행 제17자와 제3행 제1자) 여기서는 나무의 ‘뿌리’이기 때문에 ‘抵[抵]’는 誤字이다. 이어서 ‘困’이 나오는데, ‘輪困’은 ‘구불구불하고 뒤틀린 모습은 표현한 말’(『신서1』, 259쪽)이기 때문에 ‘困’은 誤字이다. 그런데 계명대 귀중본은 뭉그러진 글자 위에 가필을 하여 ‘困’의 형태로 만들어놓았다.
- 19) ‘公季“或”自退於郊’(제77면 제10행 제11자) ‘公季成’은 ‘魏 成子. 이름이 成이며, 文侯의 아우’(『신서1』, 278쪽)이다. 朝鮮刊本은 앞에서 ‘公季成’이라고 하였는데, 여기서만 ‘或’자를 쓴 것은 오류이다. 계명대 귀중본은 붓으로 가필하여 억지로 ‘成’자를 만들어 놓았다.
- 20) ‘君“者”置相’(제78면 제1행 제11자) 龍 여기서는 ‘만약’(『신서1』, 279쪽)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者’는 誤字이다.
- 21) ‘恐[恐]其有小惡, [以其小惡], 忘人之大美’(제109면 제6행 제1자와 제2자 사이) 朝鮮刊本은 ‘[]’안의 ‘以其小惡’이란 네 글자가 빠져 있어서 문맥이 잘 통하지 않는다. 龍溪精舍本을 근거로 ‘以其小惡’을 첨가하였는데, 朝鮮刊本의 이 네 글자는 脫字이다.
- 22) ‘齊桓[桓]公見“卜”臣稷’(제109면 제9행 제5자) 朝鮮刊本의 ‘卜’은 불완전한 형태로 인쇄되어있는데, ‘卜’이 아니라 ‘十’이 훼손된 형태로 인쇄된 것 같다. 四部叢刊本에는 ‘十’으로 되어있는데, 龍溪精舍本에는 ‘小’로 되어있다. 여기서 ‘小臣稷’은 人名으로 ‘齊 桓公 때의 處士’(『신서1』, 388쪽)이다. ‘小臣稷’이란 인명을 ‘十臣稷’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朝鮮刊本의 ‘卜(十이 훼손된 것으로 추정됨)’은 誤字이다.
- 23) ‘桓公其“恤”之矣’(제110면 제5행 제17자) 여기서 ‘以’는 ‘까닭’(『신서1』, 387쪽) 혹은 ‘획득하다’(『新序全譯』, 157쪽)라는 뜻이기 때문에 ‘恤’은 誤字이다.
- 24) “比”之謂也’(제115면 제4행 제6자) 여기서는 ‘이것’(『신서1』, 400쪽)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比’는 誤字이다.
- 25) ‘數戰數勝’“則民疲”(제118면 제4행 제6~8자) 龍溪精舍本에는 朝鮮刊本의 ‘則民疲’와 다르게 ‘文侯[侯]曰’로 되어있다. 뒤의 말은 ‘李克’이 계속 말하는 것이 아니라 ‘文侯’가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文侯曰’이 필요하다. 문맥상 ‘則民疲’는 전혀 필요가 없고 ‘文侯曰’이

필요하기 때문에 ‘則民疲’는 오류이다.

- 26) “‘待’衙[御]數百人’(제123면 제11행 제17자) 여기서 ‘侍御’는 ‘임금 곁에서 모시는 신하들’(『신서1』, 434쪽)을 뜻하기 때문에 ‘待’는 誤字이다.
- 27) ‘何“暇”老哉’(제130면 제9행 제9자) 여기서는 ‘겨를’(『신서1』, 452쪽)이라는 뜻인데, ‘暇’는 ‘천천히 보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誤字이다. 하지만 朝鮮刊本은 간혹 ‘日’이 ‘目’의 형태로 된 이체자를 사용하기 때문에(예를 들면, ‘明’의 이체자로 ‘明’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여기서는 ‘暇’는 ‘暇’의 이체자로 볼 수도 있다.
- 28) ‘齊有閭丘邛[邛]年“七”八’(제131면 제5행 제9자) 여기서는 ‘일곱이나 여덟’이 아니라 ‘열여덟’(『신서1』, 455쪽)이라는 숫자이기 때문에 ‘七’은 誤字이다.

(2) 下冊

- 1) ‘林木之“積”’(제3면 제4행 제2자) 여기서는 ‘材木’(『신서2』, 508쪽)이라고 해야 하기 때문에 朝鮮刊本の ‘林’은 誤字이다.
- 2) ‘子臧見負芻之當“立”也’(제13면 제7행 제2자) 여기서 ‘當主’는 ‘왕이 되다’(『신서2』, 544쪽)라는 뜻이기 때문에 ‘立’은 誤字이다.
- 3) ““令”妻子皆有飢色矣’(제28면 제8행 제18자) 여기서는 ‘지금’(『신서2』, 595쪽)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令’은 誤字이다.
- 4) ‘後秦嫁“安”于楚’(제30면 제11행 제1자) 여기서 ‘嫁女’는 ‘딸을 시집 보내다’(『신서2』, 600쪽)라는 뜻이기 때문에 ‘安’은 誤字이다.
- 5) ““孤[孤]”父[父]之盜丘人也見之’(제37면 제8행 제17자) ‘狐父’는 ‘지금의 安徽省 碭山縣 남쪽’(『新序全譯』, 254쪽)을 가리키는 地名이기 때문에 ‘孤[孤]’는 誤字이다. 또한 朝鮮刊本은 같은 면의 제10행 제14자도 ‘孤’로 사용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 6) ‘袁族[族]“月”’(제37면 제11행 제5자) 여기서 ‘袁族目’은 人名(『신서2』, 626쪽)이고, 朝鮮刊本은 앞에서 두 번은 ‘目’이라고 썼는데 여기서 ‘月’이라고 쓴 것은 誤字이다.
- 8) ‘潔[潔]之“正”也’(제38면 제4행 제14자) 여기서 ‘潔之至’는 ‘결백의 지극함’(『신서2』, 625쪽)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결백의 바름’이라는

의미의 ‘正’보다는 ‘至’가 타당하다.

- 9) ‘欲誅盾之子“時”朔’(제39면 제11행 제4자) 여기서 ‘趙朔’은 ‘春秋時代 晉나라 六卿의 하나. 趙盾의 아들’(『신서2』, 639쪽)이기 때문에 ‘時朔’에서 ‘時’는 ‘趙’의 誤字이다.
- 10) ‘屠岸賈不“德[德]”(제40면 제4행 제9자) 여기서는 ‘듣다’(『신서2』, 632쪽)라는 뜻이기 때문에 朝鮮刊本の ‘德[德]’은 誤字이다.
- 11) ‘以武爲“移”中監使匈奴’(제45면 제7행 제5자) 여기에서 ‘移中監’은 ‘漢書』<蘇武傳>에는 ‘移中廩監’이라고 하였는데, 말을 감독하는 관리’(『신서2』, 649쪽)이기 때문에 ‘移’는 誤字이다.
- 12) ‘陳恒弑簡公而盟[盟], [盟]者皆完其家’(제47면 제3행 제7자와 제8자 사이) 여기서 앞의 구절과 연이어서 번역한다면, ‘맹약을 맺었고, 맹약을 맺은 사람들이’(『신서2』, 654쪽 참조)이기 때문에 문장부호를 사용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盟’이 ‘盟盟’으로 연이어 나와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는 ‘盟’ 한 자로만 되어있기 때문에 바로 뒤의 ‘盟’자가 脫字이다.
- 13) ‘殺之干隰城’(제61면 제5행 제3자) 여기서는 ‘~에서’(『신서2』, 699쪽)라는 뜻이기 때문에 朝鮮刊本の ‘干’은 ‘于’의 誤字이다.
- 14) ‘使舉請“間”(제65면 제11행 제9자) 여기서는 ‘閑暇하다’(『新序全譯』, 300쪽)라는 뜻이기 때문에 ‘間’은 誤字이다.
- 15) ‘而戎狄之“偷”也’(제73면 제7행 제7자) 朝鮮刊本과 龍溪精舍本은 모두 ‘偷’로 되어있는데, 漢魏叢書本에는 ‘倫’으로 되어있다.(『新序全譯』, 313쪽) 여기서는 ‘무리’라는 뜻으로 써야하기 때문에 ‘偷’는 ‘倫’의 誤字이다.
- 16) ‘韓必爲關內之“候[候]”(제80면 제10행 제8자) 여기서는 ‘제후’(『신서2』, 744쪽 참조)라는 뜻이기 때문에 ‘候[候]’는 誤字이다.
- 17) ‘樓緩聞之, 往[往]“是”王’(제87면 제1행 제12자) 여기서는 ‘만나다’(『신서2』, 757쪽)라는 뜻이기 때문에 ‘是’는 誤字이다.
- 18) ‘大王當“三”關[關]中’(제94면 제7행 제18자) 여기서 ‘當王’은 ‘임금이 되다’라는 뜻이기(『신서2』, 779쪽) 때문에 ‘三’은 誤字이다.
- 19) ‘楚人“技”滎陽’(제97면 제5행 제12자) 여기서 ‘拔’은 ‘함락시키다’(『신서2』, 789쪽)라는 뜻이기 때문에 ‘技’는 誤字이다.

- 20) ‘乘上黨之兵，下“斤”陘[陘]’(제100면 제4행 제1자) 여기서 ‘井陘’은 ‘井陘關이 있는 지금의 河北省 獲鹿縣’(『신서2』, 797쪽)을 가리키는地名이기 때문에 ‘斤’은 誤字이다.
- 21) ‘資甚美膏“腴[腴]”之地’(제109면 제5행 제5자) 여기서 ‘膏腴’는 ‘비옥하다’라는 뜻이고, ‘파리하다’라는 뜻의 ‘腴[腴]’는 ‘腴’와는 반대의 의미이기 때문에 誤字이다.
- 22) ‘夫以天下“未”力’(제119면 제8행 18자) 여기서 ‘末力’은 ‘크지 않은 힘’(『신서2』, 848쪽)이란 뜻이기 때문에 ‘未’는 誤字이다.
- 23) ‘願陛下“尙[尙]”諸侯得推恩’(제124면 제9행 제1자) 여기서는 사역(『신서2』, 859쪽)의 의미이기 때문에 ‘尙[尙]’은 ‘尙’의 誤字이다.

IV. 나오며

劉向(BC 77(?)~BC 6)이 편찬한 『新序』의 서명은 『高麗史』 宣祖8年(1091)의 기록에 의하면 고려 정부에서 소장한 중국서적 목록에 들어있다. 이는 『新序』가 1091년 이전에 국내로 유입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최초의 기록이다. 조선시대에는 『新序』의 독서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데,³³⁾ 正祖(1752~1800, 재위 1777~1800)나 李瀾(1681~1763)은 여러 차례 『新序』를 직접 인용하였다. 광범위한 독서층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서적의 원활한 공급이 필요하다. 실제로 정부 관료인 李克墩(1435~1503)이 1492년경에 『新序』를 간행하도록 하였다는 기록이 『朝鮮王朝實錄』에 보인다. 이때 『劉向新序』는 목판본으로 판각되었기 때문에 이후에도 몇 차례에 걸쳐 인출된다. 이 朝鮮刊本이 조선 지식인들의 독서수요를 어느 정도 충족시켰을 것이고, 중국에서 수입된 판본들도 그 수요를 감당했을 것이다.³⁴⁾

朝鮮刊本 『劉向新序』는 민관동이 최초로 실물을 발견하여 학계에 보고

33) 서론에서 밝혔듯이 한국고전종합DB(<http://db.itkc.or.kr/>)를 검색하면 『新序』와 관련한 글들이 100여개 정도 나온다.

34) 한국고전종합목록시스템(www.nl.go.kr/korcis/)을 검색하면 朝鮮刊本을 제외하고 20여 종의 중국 판본을 확인할 수 있다.

하였는데,³⁵⁾ 그 당시 보고한 판본은 계명대학교 소장본 2종(上册)과 後彫堂 소장본(下冊) 그리고 분실된 慶山郡 崔在石 소장본과 榮豊郡 金用基 소장본이다. 필자는 이외에 한국학중앙연구원(下冊)·경기대학교(下冊)·일본국회도서관(완질)·아단문고(上册)·성암고서박물관(下冊) 소장본의 존재를 확인하였다. 이 중 원문을 확인할 수 있는 판본은 계명대·한국학중앙연구원·경기대·後彫堂·일본국회도서관 소장본이다.

현존 朝鮮刊本の 특징을 살펴보면, 上册의 경우, 계명대 귀중본은 ‘初刻本’이고, 고본은 ‘初刻本’의 제71~72면을 補刻한 ‘補刻本’이다, 또한 일본국회도서관 소장본도 고본의 일실된 제69~70면과 남아있는 제71~72면이 補刻된 ‘補刻本’이다. ‘初刻本’은 모든 면이 ‘四周雙邊’으로 되어있는데, ‘補刻本’은 補刻한 면만 ‘四周單邊’으로 되어있다.

下冊의 경우, 한국학중앙연구원과 경기대 소장본은 ‘初刻本’이고, 後彫堂과 일본국회도서관 소장본은 上册과 마찬가지로 제9~10면·제63~64면·제87~88·제107~108면을 ‘四周單邊’으로 補刻한 ‘補刻本’이다. 그런데 본문에서 사진으로 비교한 제107면을 보면, 경기대 소장본은 ‘初刻本’이더라도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본에 비해 글자가 뭉그러진 부분들이 보이고, ‘補刻本’인 後彫堂과 일본국회도서관 소장본은 그 해당 면을 補刻하였다. 그렇다면 補刻한 이유는 글자가 뭉그러져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본이 가장 먼저 인출된 ‘初刻本’이고, 경기대 소장본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본에 비해 판이 훼손된 상태에서 인출된 ‘初刻本’이며, 後彫堂과 일본국회도서관 소장본은 ‘初刻’한 원판의 훼손되어 해당 면을 아예 ‘補刻’하여 인출한 ‘補刻本’이다. 그러므로 上册의 경우 현존하는 판본으로는 2회에 걸쳐 인출되었음만 단정할 수 있지만, 下冊의 경우에는 현존하는 4종의 판본들을 대조해보면 적어도 3회에 걸쳐 인쇄가 이루어졌음은 확정할 수 있다.

필자는 이어서 현존 판본들을 바탕으로 실제 문헌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朝鮮刊本の 특징을 제시하였다. 먼저 卷首題·卷尾題와 문단의 형식을 고찰하였는데, 上册의 맨 앞부분에 「劉向新序目錄」이 실려 있고 이어서 曾鞏(1019~1083)이 쓴 「序」가 실려 있다. 朝鮮刊本 『劉向新序』의 卷首題와

35) 민광동, 「조선 출판본 『新序』와 『說苑』 연구」, 『中國語文論譯叢刊』 제29집, 2011.

卷尾題는 모두 「劉向新序卷第一」과 같은 형식으로 되어있는데, 이와 다르게 된 것들은 본문에서 살펴보았다. 그리고 소장처에서 작성한 목록에는 字數가 ‘11行18字’로 되어있으나, 실제 판본 상에는 ‘18字’가 아닌 곳들이 여러 군데 등장한다. 字數가 不定한 해당 面과 行의 字數는 본문에서 표로 간략하게 제시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雙行의 小字註를 살펴보았는데, 현존하는 朝鮮刊本의 上冊에는 제30면 한 군데만 小字註가 달려 있다. 그런데 四部叢刊本에는 朝鮮刊本 3종(계명대 귀중본·고본과 일본국회도서관 소장본) 모두 일실된 제85~86면 중 제86면에 小字註가 들어있기 때문에 朝鮮刊本에도 小字註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下冊에서는 제50면·제51면(3곳)·제76면(3곳)·제79면·제81면에 ‘小字註’가 여러 군데 등장한다. 朝鮮刊本에는 두 종류의 빈칸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글자가 빠진 빈칸이고 다른 하나는 검은 색으로 인쇄된 빈칸이다. 빈칸이 나오는 곳과 빈칸에 해당하는 四部叢刊本의 글자는 본문에서 밝혔으며, 四部叢刊本에는 빈칸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빈칸은 朝鮮刊本만의 특징임도 언급하였다. 필자는 이상에서 朝鮮刊本과 四部叢刊本의 동일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는데, ‘誤脫字’를 논술할 때에는 지면 관계상 四部叢刊本의 오류를 제외하고 朝鮮刊本에 출현한 誤脫字만을 살펴보았다. 이때 朝鮮刊本의 誤脫字는 해당하는 곳을 명기하고 오류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 참고문헌

- 崔致遠, 『桂苑筆耕集』·『孤雲集』. 한국고전종합DB(<http://db.itkc.or.kr/>).
- 『高麗史』 「世家」.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
- 『朝鮮王朝實錄』 「成宗實錄」. 한국고전종합DB(<http://db.itkc.or.kr/>).
- 奎章閣, 『弘齋全書』. 한국고전종합DB(<http://db.itkc.or.kr/>).
- 李瀾 『星湖僊說』·『星湖全集』. 한국고전종합DB(<http://db.itkc.or.kr/>).
- 黃玿, 『梅泉集』. 한국고전종합DB(<http://db.itkc.or.kr/>).
- 四部叢刊初編本 『新序』. 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https://ctext.org/zh>).
- 龍溪精舍叢書本 『新序』. 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https://ctext.org/zh>).
- 劉向 撰, 林東錫 譯註, 『신서1·2』, 동서문화사, 2009.
- 劉向 原著, 李華年 譯註, 『新序全譯』, 貴州人民出版社, 1994.
- 金致雨, 『嶺南冊板記』 所藏 刊本の 分類別 傾向, 『書誌學研究』 제24집, 2002.
- 閔寬東, 「조선 출판본 『新序』와 『說苑』 연구」, 『中國語文論譯叢刊』 제29집, 2011.
- 姚娟, 「『新序』·『說苑』 文獻研究」, 華中師範大學 博士學位論文, 2009.

❖ ABSTRACT

A Bibliographical and Literary Research on the
Xinxu(新序) of the Published edition in Joseon

You, Sueng-hyun

Min, Kuan-dong

Xinxu(新序) was published in Korea by 1492. Among the existing editions, the editions that can confirm the realities are the collections of Keimyung University, the Korean Studies Central Research Institute, Kyonggi University, Hujodang(後彫堂), and the National Assembly Library of Japan. The Keimyung University's precious book is the 'first published book', and the old book is the 'later published book' which covers pages 69-70 and 71-72 of the first published book. It is the 'later published book' that has the same side inscribed. The second books, the Central Research Institute of Korea Studies and the Kyonggi University Collection are the first published books, and the Hujodang and the National Assembly Library of Japan are on pages 9-10, 63-64, 87-88, 107-108. The corresponding side is the 'later published book'. Comparing the editions,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existing editions of the previous editions have been withdrawn two times, and in the latter editions, the existing editions of four editions can also be confirmed to have been edited three times.

In this paper, the literature based on the existing editions was studied and features of the Korean edition were presented. First, we examine the types of paragraphs. In principle, the text is composed of '11 lines and 18 characters', but on the actual version, the number of characters is shown in the table. In the Korean edition of the Joseon dynasty, a blank space appears in the original text. The erroneous letter in the Joseon book was identified the reason for the error was explained in detail.

Key Words : Joseon Published edition, Xinxu(新序), the Collection of Keimyung University, the Collection of Central Research Institute of Korea, the edition of Sibucongkan(四部叢刊本)

■ 논문접수일 : 2018. 05. 10

■ 심사완료일 : 2018. 05. 31

■ 게재확정일 : 2018. 06. 30